

사순절에 보는 주님 사랑



최인식 | 청주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2004년
들소리문학 신인상 수상. 성결교회역사와문학연구회,
활천문학회 회원. 화도교회 목사. 시집 『난초가 피어
나는 섬 화도』 외

눈꽃에 불꽃덩이 물들어가면
겨울을 이겨낸
나뭇가지에
봄은
찬란함의 미소로 다가옵니다
적막함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날들이
찬란함의 미소로
생명의 축제인 봄에 빠져들면
주님의 부르시는
순종의 노래가 고난 가운데
매화꽃보다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사순절은
꽃송이가 피어나기까지
떨림으로 기다리는
간절함의 몸짓 같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원수 된 길을 간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노래
겻가에 속삭이듯 다가오기에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 붙잡고서
주님이 걸으신 발자국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
사순절의 경건함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그 고난이
몸의 하나가 되기까지
꽃망을 터뜨리는 난초에게서
인내와 소망을 배우며 나갑니다. **샘**



